

우리의 비전 : 이든벨리 원주민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오리라 !!

우리의 사명 :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북미 원주민 선교편지 (주간 선교일기)



(2020년 7월 19일)

누군가가 교회 문 앞에 마약을 하는 기구를 버려두고 갔다, 기부라도 하려나?. 마약!!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고 있는 원흉이다. 화김에 오른발로 후려 차버렸는데,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축구공을 제일 멀리 보냈던 명성에 걸맞지 않게 1미터도 못가버린다, 갈대 크기로 자라난 풀들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의 풀들을 깎기 시작했다. 작은 기계로 큰 풀들을 공략했더니, 그 속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았던 온갖 모기, 쇠파리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눈, 코, 뒷목을 사정없이 공격한다. ‘내 보금자리 부수지 말아~’ 소리치듯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애걸했던 군대 귀신들도 그랬을것 같다. “어림도 없다 이놈들!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고야 만다!!”.

여기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이다. 성경에 소개된 사건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0년 우리에게도 실제상황이다. 누구나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이든밸리를 특히 몇년 만에 예배에 참석한 웨키라의 영혼을 치유해 주소서.

(2020년 7월 26일)

저만치에서 손짓하며 다가온 한 여인이 내 앞에 오자마자 고뇌를 털어놓는다. “더는 이 마을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도시에 가면 사람다운 삶이 있겠지요”. 걸어서라도 ‘캘거리’로 간다고 한다.

“낙원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속에 천국을 만들라”고 했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준다.

이곳 이든밸리는 정말로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일까? 불행하게도, 이곳에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인생을 건설하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변화 없이 현실도피인 장소이동만으로 어찌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애써 웃는 얼굴에서 마치 인생 마지막을 결심한 듯한 표정이 읽혀졌다.

예배당을 등지고 가방을 멘 채 긴 걸음을 시작하는 확센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고 말해 주었을 뿐이다. 주님! 이 땅과 그 여인을 구원주소서.

(2020년 8월 3일)

가끔 한국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특히 재래시장의 풍경과 충주 근방의 송계계곡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부부가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다. 교우들과 같이 웃고 울고,, 심지어 빠침과 다툼을 지나 신뢰가 만들어진 그곳에서 지워질 수 없는 삶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기록되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든밸리 성도들이 훗날에 우리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존재로 여길지,, 정말로 궁금하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여 섬기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부부에 대하여 무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 영광에 해를 끼치지 않기만을,,

술 중독자 중에 단연 챔피언 감인 토니가 인디언의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예배에 참석했다. 조용히 말씀을 경청한 뒤 손짓으로 인사하며 갔다. 마을에서 조차 외면당하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지기를 기도한다.

(2020년 8월 10일)

마을 청년 ‘르씨엔’은 이든밸리 예배공동체 안에서 또 한 가닥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 내 부족한 영어설교를 들으면 서도 연실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비쳐지는 성경 구절들을 핸드폰으로 찍어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듯하다.

고교 시절,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성경 말씀이 심상치 않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덕분에 나 같은 ‘불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소중한 종족을 섬기고 있다. ‘르씨엔’의 마음에도 그런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지면 좋겠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우들이 예배 참석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웬일로 르씨엔 가족은 뒷심을 보이고 있다. 아내도 교우들의 체온측정, 손 소독, 일회용 마스크 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 중에 당신이 선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이든밸리 교회를 사수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세워 주소서 !!

(2020년 8월 17일)

지난주에 한 원주민 청년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숨져서 어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다. 5살 때 백인 가정으로 입양 갔지만 19살이 되면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생을 이렇게 마감했다. 마을 안에서는 또 다른 청년이 역시 마약 때문에 몇 일 전에 죽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한번 젊은이의 장례식이 있을 것 같다.

코로나처럼 지독한 정신파괴 바이러스가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안다.

복음화가 쉽지 않은 종족임을 사역 초반부터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광야에 서 있는 메마른 나무들처럼 느껴진다. 서부영화에서 바위에 앉아있는 인디언 할아버지의 모습,, 그 느낌 그대로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18살 정도의 '조우지'는 복음을 따라 사는 건강한 자매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다음 주일, 우리 부부가 성령께서 채워주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23일)

체스터는 예배 시간에 잠을 청한다, 매 주일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그의 정성이 신기할 정도이다. 킷쓰는 술을 잔뜩 먹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예배당에 들어왔다. 마음속에서 몸살 생각이 든다. "내가 꼭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나?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일 전에 읽었던 요나서가 떠올랐다,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요,,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욥 4:11). 마음이 녹아버렸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나무들이 갑자기 달라 보인다. 아기 손바닥만 한 잎사귀들이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안고 소리 내면서 힘있게 흔들리는데,, 순간!! 나는 어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잎사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내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닌데, 이건 뭐지??

한참후에 오른손에 힘을 쥐고 주님께 말씀 드렸다. "주님,,,당신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든밸리를 끝까지 품어주세요..

(2020년 8월 30일)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엘리야의 메세지를 듣고 깊은 고민을 하며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징벌을 다음 세대로 미루셨다(왕상 21:27-29). 남 유다에서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므낫세 왕의 죄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 왕은 모든죄악의 결정판이었다(왕하 23:26). 그가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전승이 있다. 그런데 막판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셨다(대하 33:10-13). 적국인 앗수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요나는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세지 전하는 일을 거부했었다(욥 4:2).

하나님의 '용서'는 역사 속에서 보여졌다. 죄로 점철된 우리도 구원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 이유다. 이든밸리어! 우리가 살길은 회개뿐이다. 마음을 찢자, 앞드리자 주님 앞에,

(2020년 9월 6일)

마을 의료 담당자인 수간호사 "조세핀"이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교회를 찾아왔다. 마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왔다. 지난 2주 동안 3명의 젊은이들이 또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인지 자체적으로 '위기 관리팀'을 구성하고 조언을 구한다고,,그리고 도와 달라면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려나 보다,, 이미 온 마을이 죽은 나무가지처럼 메말라 있었는데, 왜 지금에야 와서,,,

1주일 시간을 달라고 했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나머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켜나갈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했다.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싶다. 철저히 준비하고 협력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제발 이번 주간에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웨인이 자기 형제가 사냥한 것이라고 '엘크' 고기를 싹둑 잘라서 건네주었다,,냉장고가 넉넉해졌다 ^^.

(2020년 9월 13일)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평소에 교회를 멀리했던 가정이 오늘, 아이들까지 총동원해서 예배에 왔다. 고난을 없애 달라고 예배에 집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후에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말라”(출20:3)를 시작으로 ‘우상숭배 금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셨다.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은 ‘신’과의 쌍방 교류를 거부 한 채, 자기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정작 관계회복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주세요”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종교 행위나 다름없다.

구약성경은 우상숭배 때문에 개인과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우리 이든밸리가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외친다. “하나님을,, 말하지도, 듣지도, 대답도 못 하는 우상으로 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그를 듣고, 그를 보고 그를 따르라!!..우리,,같이 살자!”

(2020년 9월 20일)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시간에도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때문에 교우들 외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가 마을 사람인지 외부인인지조차 구별하기가 어렵다. 오늘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던 새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언뜻 쳐다봐도 졸거나 잠든 것은 아니고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에 집중하는 듯했다. 이름이 ‘토니’라고만 밝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뒤에서 안내하며 이름을 물어본 아내는 그가 많이 아픈 사람 같아 보인다고 했다. 예배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나갔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온 그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 주의 은혜가 임했기를,,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중에, 이든밸리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임재안에 들어오기를 간구하고 있다. ‘토니’가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도록 이번 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27일)

사사 기드온 때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했고, 큰 슬픔 중에 “나를 나오미(**기쁨**)라 부르지 말고 마라(**쓴물**)이라 부르라”(룻 1:20)고 했다. 이 여인의 아픔은, 다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진 ‘마라’는 결코 ‘마라’로 끝나지 않는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훗날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자손을 얻게 되어, ‘나오미’(**기쁨**)를 되찾는다!!.

나오미의 삶에서 ‘기쁨’은 허상이고 ‘쓴물’이 실상 같았는데,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환희를 경험한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도착한 마라(**쓴물**)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무가지를 던져넣어 단물로 변하게 한 기록도 있다 (출15:23-25).

이든밸리속에 있는 **마라**를 단물로 바꾸기 위해 오늘, 2020년 9월 27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무가지가 되려고 충성을 다했다

(이든밸리에 특이사항이 없는 주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이든밸리 소식을 대신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하며 자신을 녹인 사람들이 있었다. 침(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눅3:10)과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행2:37), 그리고 빌립보 간수(행16:30)가 그들이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들도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로마에 주의 백성들이 생겼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교회를 개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게 했으며, 세계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수리아 안디옥교회의 설립도,, 모두 이들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가슴을 치는(시 34:18) 자기검증과 교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서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으며 아골 골짜기 빈들까지도 갈 수 있는 인내와 배짱을 소유할 수 있다.

뇌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 기능중의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 기능이 더 활발해져서 우리의 상태를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기를 기도드린다.

(2020년 10월 11일)

지난주 금요일(9일), 신실했던 오벌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스톤 부족인 세 마을의 추장들도 모두 참석했다. 북을 치면서 인디언들의 특유한 발성으로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가을 복장의 나는 들판에서 3시간 동안 예상치 못했던 추위에 떨었다.

장례식은 그들 문화에서 가장 진지한 행사이다. 리더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오벌 생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이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하는 배려도 보여주었다.

내 차례가 되어서 나갔다. 마을의 목사라고 초청을 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위해 기도했었다. 원주민 신화에 나오는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사후에는 모두가 하늘나라 간다고 믿고 있는 그들,,그러나 대다수가 불신자들인 그 장례식에서, 당신들도 지옥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벌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힘있게 말했다.

돌아오는 길은 코로나에게 일격을 가한 듯 속이 아주 시원했다.

(2020년 10월 18일)

예배 시간, 설교하는데 회중들 중에 정반대의 반응이 보인다, 오른쪽의 한 젊은이는 말씀을 듣는 중에 괴로워서 몸을 뒤틀며 자리에서 안절부절못한다, 직감으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아챘다. 같은 시각 왼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흡수하는 듯했다. 이것이 이든밸리에서 첫번째 경험은 아니다. 예수님은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눅4:18)고 하셨다. 복음은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선다!! 허다한 주의 증인들처럼,, 우리 삶에서 악령을 밀쳐내고 승리하고야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암울한 오늘에 주저앉지 않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곳 이든밸리에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길,, 주여 도와주소서,,예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소서!!

(2020년 10월 25일)

엘리아 선지자에게 양식을 배달했던 까마귀들,, ‘홍부놀부전’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실화이다(왕상17장). 까마귀가 먹이를 들뜰 사이에 숨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까마귀의 본성이 그때에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중에 오직 엘리아를 향해서만 자비심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본능적인 활동만 할 줄 아는 조류가, 천사가 하는 일(왕상19:5)을 대신했다. 그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택받은 개체로써,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본능을 추월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때로부터 100년 정도 후의 사건인, 요나를 삼켰다가 사흘 후에 다시 토해냈던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든밸리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며 마음을 다해 두 손을 모으는 동지들이 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능을 뛰어넘어 초 인간적인 의지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1일)

함의 후손 니므롯은 시날땅의 통치자였는데, 그곳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던 바벨론 왕국이 시작된 곳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를 즐기며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사는 나라가 되었다.함의 후손 니므롯은 시날땅의 통치자였는데, 그곳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던 바벨론 왕국이 시작된 곳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를 즐기며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은 약 690년 만에 나라의 기초를 세웠는데, 가나안땅에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성막이라는 세가지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사무엘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역장이 무너지는 듯함을 느낀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신정’(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 ‘인권’만 요구하는 것이, 바벨론 왕국이요, 세상 왕국이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든밸리의 ‘전통’과 ‘문화’가,, 북미의 겨울왕국을 더욱더 춥게 만든다. (창10:8-12, 11:2-4, 합1:11, 삼상8장, 엡2:2)

(2020년 11월 8일)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눅 16장). 그는 살아있는 동안 부자집에서 버린 음식으로 연명한 것 같다. 그 부자는 말하겠지,, “나사로는 내가 먹여 살렸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당신과 나는 ‘삶’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 대 흉년 때, 7년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것을 본받아서, 은행 잔고가 안전해진 다음에, 그러고도 여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리저리 골라내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큰맘 먹고 구제와 선교에 참여한다, 그것도 조건이 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아야 한다!”.
부자가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다. “내가 없었다면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 남았을 수 있었겠냐고,,”
정말로 그럴까? 공중의 새들과 들꽃들의 생존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덕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박한 재료로 건설되지 않는다. 당신의 귀한 옥합은 어디에 있나?

(2020년 11월 15일)

마을 위기관리팀의 초청을 받아 지난 월요일 모임에 다녀왔다. 민망하게소리,, 우리 부부에게 현재 마을이 당면한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다. 예상대로 ‘마약 중독’과 ‘정신적 질병’이 심각하다는 통계다.
나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한 (1) 중독자들의 내적 치유 (2) 중독자들 치유 프로그램 (3) 신, 구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마을의 팀들은 교육할 장소, 비품들, 참석자들 점심, 등등 모든 것을 준비하겠으니 교육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마을의 문제점들을 성경적 해결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다음주 부터 당장 시작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할 이 사역에 동역자들의 신실하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의 왕이시여, 부족하기만 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주의 영이 침투하셔서 불신과 저주, 그리고 악령들을 전멸시키소서!, 여호와 닮은 밋발로 이든밸리의 왕은 하나님 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높이 드러나게 하소서!!

2020년 11월 15일

북미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북미 인디언 ?

-캐나다에 140만 여명이 2천3백개의 지정된 원주민 마을에서 적게는 몇백명에서 많게는 만여명씩 모여서 살고 있다.

-원주민 최초 캐나다 주 의원이었던 하퍼(Elijah Harper)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원주민들은 백인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반감때문에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원주민 복음화는 1%-5%에 불과하다.

-알콜, 마약중독, 자살률 심각(거의 모든마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빛진자로서, 북미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기쁜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기도해주세요

1. 김 선교사 부부의 삶과 사역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도록.
2. 이든밸리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3. 마을의 중독자들 치유 프로그램을 위해서.
4. 아들(김 의주, 전 혜연, 주안, 선유)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도록.